

6. 게르만족의 이동



1) 게르만족

- 원주지 **발트해 연안**, 부족 사회(왕, 수장), 계급 분화, 종사제, 아리우스파
- 인구 증가, 농지 부족, 훈족의 압박 → 서쪽 이동
- 제정 로마에서 용병, 콜로누스로 활동
- **훈족의 서진(4세기)** → 게르만족의 대이동(4-6세기)

2) 게르만 왕국

- 브리튼 섬 : 5세기, 앵글로색슨 7왕국 → **잉글랜드 왕국(927-1707)**으로 통합
- 갈리아 지방 : 부르군트 왕국(413-436) : 기사 문학 「**니벨룽겐의 노래**」 소재
부르군트 왕국 재건(443-534) : 프랑크 왕국에 멸망
프랑크 왕국(481-843/888)
- 이탈리아 반도 : 동고트 왕국(493-553) : 비잔티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게 정복
롬바르드 왕국(랑고바르드, 556-774) : **카롤루스 대제**에게 정복
- 이베리아 반도 : 서고트 왕국(415-711) : 우마위야 왕조에 정복
- 북아프리카 : 반달 왕국(435-534) : 비잔티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게 정복

19. 프랑스 대혁명 / 나폴레옹 시대(1789-1815)

배경	구제도(양시앵 레짐)의 모순 : 제 1, 2 신분(귀족, 성직자)와 제 3 신분(평민) 차별
1789.5.	루이 16세,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인한 재정문제로 삼부회 소집 → 투표 방식으로 대립
1789.6.13.	테니스 코트의 서약 → 국민 의회 결성
1789.7.14.	(정부의 국민의회 탄압 →)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
1789.8.	봉건제 폐지 선언(유상 폐지)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순서 기억할것
1791.6.	바렌스 도피사건 → 혁명 과격화
1791.9.	1791년 헌법 : 입헌군주제 + 제한선거(세금을 내는 성인 남성) → 입법 의회 구성
입법의회 (1791.10.-1792.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롱드파(공화파, 상공시민계층) 주도 · 혁명전쟁(vs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선전 포고) → 연패, 위기 → 의용군 소집 · 1792.8. 샹클로트 무장봉기 : 루이 16세 습격-유폐(왕권 정지) → 과격파 혁명세력 득세 · 1792.9.20. 발미 전투 : 혁명군이 프로이센 격파
국민공회 (1792.9.20.-179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2.9.20. 입법의회 해산 → 제 1 공화정 수립 · 자코뱅파(산악파/농민, 노동자) 주도 · 1793.1.21. 루이 16세 처형 → 제 1차 대프랑스 동맹(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 등) ·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급진적 개혁(←혁명전쟁, 지롱드파 반란으로 인한 경제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3년 헌법 : 입헌공화정 + 보통선거 / 혁명재판소 + 공안위원회 - 봉건제 무상폐지(무상몰수 무상분배) / 징병제, 혁명력, 미터법, 의무교육, 최고가격제 · 1794.7. 테르미도르 반동 → 로베스피에르 처형, 테르미도르파 집권
총재정부 (1795.10.-179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5.9. 공화력 3년 헌법 : 행정부(5명의 총재의 권력분립) + 양원제 입법부 + 제한선거 · 1795.10. 선거로 총재 선출 → 총재정부 수립 : 공화파(테르미도르파) vs 왕당파 · 경제 개혁 난항 → 경제난 지속 · 1796-1797. 나폴레옹 이탈리아 원정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승리 →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토 획득 · 1798.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cf. 로제타석 발견) → 제 2차 대프랑스 동맹 · 1799.11 왕당파 나폴레옹, 시에에스의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 성공 → 통령정부 수립, 나폴레옹 실권 장악
통령정부(집정정부) (1799-1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의 통령이 권력분립(제 1통령 나폴레옹의 권한이 가장 강함) · 1802. 나폴레옹 종신 통령 · 오스트리아, 러시아 격파 · 나폴레옹 법전 + 프랑스 은행 + 국민교육제도 · 1802. 아미앵조약 : 영국과의 강화 조약
프랑스 제 1 제국 (1804-1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4. 국민투표 → 나폴레옹 황제 즉위(노트르담 대성당) → 이에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란츠 2세가 오스트리아 제국을 선포, 프란츠 1세로 즉위 · 대프랑스동맹 격파 →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제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왕국(1805-1814) : 국왕을 나폴레옹(1세)으로 하는 괴뢰국 - 라인 동맹(1806), 신성로마제국 해체(1806) - 탈지트 조약(1807) : 프로이센, 러시아 굴복 · 1805.10. 트라팔가 해전 패배(영국 넬슨 제독) → 1806. 대륙봉쇄령 · 1808. 스페인 왕위 강제 찬탈 → 스페인 민중 봉기 → 이베리아 반도 전쟁 개시 · 1812. 러시아 원정 / 실패 → 1812.12 제 6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 · 1813-1814. 해방전쟁(1813.10. 라이프치히 전투/프랑스 패배) / 패배 · 1814.4. 나폴레옹 퇴위, 엘바 섬 유배 · 1814.7. 부르봉 왕정 복고(루이 18세 즉위) · 백일천하 : 1815.2. 엘바 섬 탈출 → 1815.3.20. 황제 즉위, 자유제정 실시 → 1815.6. 워털루 전투(對 영국, 프로이센) 패배 → 폐위, 세인트헬레나 섬 유배

2)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 (1801-1825)	· 나폴레옹 전쟁 승리
니콜라이 1세 (1825-1855)	· 1825. 즉위식에서 데카브리스트 난 발생 → 진압, 보수적 전제정치 강화 · 남하정책 → 크림전쟁(1853-1856) / 러시아 패배
알렉산드르 2세 (1855-1881)	· 1855. 크림전쟁 중 즉위 · 1861. 농노해방령 선포 · 지방의회(젬스투보) 설치 + 군제개혁(징병제) · 제 12차 러시아-투르크 전쟁(제 2차 동방 전쟁, 1877-1878) - 러시아 + 발칸 연합국 vs 오스만 제국 → 열강 영토 확장, 발칸 국가 독립 · 브나로드 운동(나로드 니키) → 정부 탄압, 민중 무관심으로 실패 → 무정부주의 테러로 변질 → 알렉산드르 2세 암살 → 알렉산드르 3세 전제정치 강화
니콜라이 2세 (1894-1917)	· 국가 주도의 산업혁명 → 노동자 계급 성장, 사회주의 확대 · 1904-5. 러일전쟁 패배 · 1905. 피의 일요일 사건 → 두마(의회) 설치와 입법권 보장 약속 → 두마는 설치하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1906-1917), 전제정치 강화 ※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 결성(레닌, 1898)
1917년 3월 혁명 (러시아력 2월)	·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한 경제악화 · 1917.2. 상트페테르부르크(페트로그라드) 시위 : 노동자 시위 → 시위 진압군이 혁명 세력에 가담하여 혁명 성공 · 1917.3.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 자유주의 임시정부 결성 · 1917.3. 니콜라이 2세 폐위, 러시아 제국 멸망 → 러시아 공화국(1917-1917) - 이중권력체제이나 상대적으로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주도 - 토지 재분배, 헌법 제정, 의회 소집 약속 → 개혁 미흡, 전쟁 지속 · 4월 테제 : 레닌이 임시정부 비판, 소비에트로 권력 이양 주장
1917년 11월 혁명 (러시아력 10월)	· 레닌과 트로츠키의 볼셰비키 당의 군사 쿠데타 → 임시정부 타도 성공 · 1917.11.7. 소비에트 러시아 건국 → 각종 개혁(재산 몰수, 기간 산업 국유화) · 1918.3.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 전쟁 중단 · 1919. 코민테른 조직(국제 사회주의 조직체)
러시아 내전 (1917-1922)	· 적백내전 : 볼셰비키 정부군(적군) vs 반혁명군(백군) · 전시공산주의 → 경제 악화 → 신경제정책(NEP, 1921-1928) : 시장 경제 요소 도입 · 적군의 승리 → 사회주의 독재 강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 1922)	· 1924. 레닌 사망 → 스탈린 집권 : 신경제정책 폐기, 독재 강화 · 중공업 중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1928-1937)

◎ 트로츠키의 연설(1920)

우리는 원대한 이상과 열정을 품고 이 투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적 우애와 물질적, 정신적 삶의 풍요가 금방이라도 활짝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3년 전(1917년) 그때로 돌아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러시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겹고 고달픈 일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30. 냉전체제

1940's		1950's
자유주의		
트루먼 독트린(1947)	← 소련의 동유럽 공산화	1953. 스탈린 사망 → 흐루쇼프 집권(1953-1964)
마셜 플랜(1947)	→ 코민포름(1947)	1954. 콜롬보 회의 : 네루, 저우언라이 → 평화 5원칙
서독 통화 개혁(1948)	→ 코메콘(1949)	1955. 반동 회의(인도네시아) : 평화 10원칙 소련과 서독 국교 회복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 미국과 서유럽의 집단방어체제, 1949)	→ 베를린 봉쇄(1948-49)	1956.2. 중소 이념 대립 시작 .10. 헝가리 혁명 → 소련군에 진압
	바르샤바 조약 기구 (WTO, 공산국가들의 군사협력기구, 1955)	1959. 흐루쇼프 미국 방문 1960. '아프리카의 해' 30여개국 독립
1960's		
다극화		1961. 베를린 장벽 건설 제1차 비동맹 회의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제3 세계 대두		1962. 알제리가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 독립 쿠바 미사일 위기
중소 이념 분쟁		1965. 베트남 전쟁 시작
유고슬라비아 연방, 티토 정권		1968. 체코 프라하의 봄
프랑스, 샤를 드골 독자 노선		1969.3. 중소 국경 분쟁 .7. 닉슨 독트린(팜 독트린)
유럽 공동체(EC) 출현(1967)		
일본의 경제대국화		
1970's		1980's - 냉전 종식
1971.5. 1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11 중국 UN 가입		1985-1990. 고르바초프 정권 → 개혁/개방 정책(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
1972.2. 닉슨 중국 방문 .12. 동서독 기본 조약 → UN 동시 가입		1989. 폴란드 민주화(자유노조 바웬사 대통령) 헝가리 민주화(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베를린 장벽 붕괴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 - 벨벳 혁명 : 하벨의 시민 광장(포럼) - 하벨 대통령 당선 - 체코/슬로바키아 분리(1993) 루마니아 민주화 (차우세스쿠 처형)
1973. 미국 베트남 전쟁 철수(파리 평화 협정)		1989. 몰타 미소 정상 회담 → 협력과 평화 선언
1979. 미국-중국 수교 SALT II		1990.10.3. 독일 통일
1979-1989.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 소련 패배, 심각한 경제 악화		1991. 소련 해체(엘친 정권) : 냉전 종식 → 독립국가연합(CIS) 결성
		1992.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신 유고 연방, -2003)

◎ 반동 회의(1955, 인도네시아)

우리는 종종 "식민주의는 죽었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우리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식민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한 지역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식민주의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다수는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세계의 소수자에게, 우리가 가진 무엇이더라도 평화를 위해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성공시킵시다! '살고 살게하는(Live and let live)' 원칙과 '다양성 속의 단합'이라는 모토는 나와 타인의 삶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개막 연설-

근현대 문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철학	경험론(귀납법/영국) 베이컨(심 기관-노출 모르가능)	관념론 칸트(순수 이성 비판)	관념론 : 피히테, 헤겔 / 생철학 : 쇼펜하우어 / 니체 공리주의 : 벤담, 밀 / 실증주의 : 콩트(사회학)		실존주의 : 하이데거, 사르트르 실용주의 : 듀이
문학	로크, 흄스, 흄 합리론(번역법) 데카르트(프랑스, 방법서설) 스피노자(네덜란드)	고전주의 로빈슨크루소(1719) 걸리버여행기(1726)	낭만주의 계몽사상, 고전주의 비판 민족주의 역사학 자극 괴테, 바이런, 푸시킨 하이네, 빅토르위고	사실주의 낭만주의 비판 사실적 묘사(사회 비판) 에밀 졸라, 찰스 디킨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해밍웨이
건축	바로크 양식(화려, 웅장) 베르사유 궁전	로코코 양식(경쾌, 섬세) 상수시 궁전			
음악	바로크 음악 바흐, 헨델	고전파 음악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파 음악 슈베르트, 쇼팽, 슈만	국민 음악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 스메타나, 베르디	
미술	바로크 미술 렘브란트, 루벤스	로코코 미술	낭만파 고야, 들라크루아	사실파 밀레 쿠르베 인상파 마네 모네 르누아르 후기인상파 고흐 세잔	입체파 피카소 야수파 마티스
과학	'과학 혁명' 16세기 코페르니쿠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1543) 베살리우스 - 인체 해부학	뉴턴(17-18c) 프린키피아(1687) → 기계론적 세계관 루소 : 사회계약론(1756) → 일반의지, 주권재민	다윈 - 종의 기원(1859) / 멘델 - 유전법칙(1866) 패러데이, 헤르츠, 파스퇴르, 퀴리부부(라듐), 뢰트젠(X선) 코흐(결핵균, 콜레라균), 멘델레예프(주기율표)		에디슨(19-20c) 프로이트 : 정신분석학
기타	17세기 케플러, 갈릴레이(16-17c) 하비 - 혈액 순환 흄스 : 리바이어던(1651) → 절대왕정 옹호 로크 : 시민정부론(1690) → 저항권, 명예혁명 옹호	계몽사상(프랑스) 루소, 에밀, 볼테르 몽테스키외(법의 정신: 삼권 분립 → 미국 혁명 영향) 백과전서(1728) 달랑베르, 디드로 고전 경제학 창시 애덤스미스 : 국부론(1776)	증기선(미국 풀턴, 1807), 증기기관차(영국 스티븐슨, 1814) 유선 전신(모스), 무선 전신(마르코니), 전화(벨), 노벨 뤼미에르 형제(최초 영화) 랑케 : 실증적 역사 연구, 근대 역사학 확립 이상적 사회주의 : 푸리에·생시몽(프랑스), 오언(영국) 과학적 사회주의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1848), 엥겔스 리카도, 맬서스 : 고전 경제학 완성		케인즈 : 수정자본주의 사회학 : 막스 베버(독일) 역사학 : 슈팽글러, 토인비

1. 중국 왕조 수도 정리



위치	중국명(현재)	한국명(현재)	도읍 국가(해당 왕조 시대의 명칭)
㉓	시안	장안	주(호경) / 진(함양: 엄밀히는 근처) / 한(장안) / 수(대흥) / 당(장안)
㉔	뤄양	낙양	동주(낙읍) / 후한(낙양) / 위(삼국시대, 낙양) / 서진(낙양) 북위(낙양: 효문제가 평성에서 천도) 수(동도: 양제가 장안에서 천도)
㉕	카이펑	개봉	북송(동경, 변경, 변량)
㉖	항저우	항주	남송(임안)
㉗	난징	남경	육조 시대 : 오(삼국시대, 건업) / 동진(건강) / 남조 송·제·양·진(건강) 명(주원장, 응천부) / 태평천국(천경) / 중화민국(남경) 명칭 변화 : 금릉 → 말릉(진시황) → 건업 → 건강 → 금릉(당) → 응천부(주원장) → 남경(영락제)
㉘	베이징	북경	금(중도: 상경회령부 → 중도 → 카이펑) 원(대도) 명(북경, 영락제가 천도) 청(북경, 성경에서 천도)
기타 주요 도시	㉙ 다둥(대동) 舊 평성		평성의 치, 북위 초기 수도
	㉚ 청두(성도)		촉한(삼국시대)의 수도
	㉛ 선양(심양)/평톈(봉천) 舊 목단, 성경		청나라 초기(후금) 수도, 봉천 전투(러일 전쟁)
	㉜ 충칭(중경)		중화민국 임시 수도(중일전쟁), 후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9. 중국 현대사

1) 1900's - 1910's

중국(혁명)동맹회 (1905)	· 쑨 원 등 혁명파가 도쿄에서 조직 · 삼민주의 · 각지 무장봉기(1905-1911)
광서신정 (1908)	· 과거제 폐지 → 학당 개설 · 입헌군주제 실시 → 헌법 대강 발표, 신군 창설 · 자의국(지방의회) 설치
신해혁명 (1911-1912)	1911. 철도 국유화령 → 보로운동, 쓰촨 폭동 1911.10.10. 우창 신군 봉기 → 중화민국 선언(쌍십절) → 청 정부는 위안스카이에게 북양군벌에게 혁명군 진압 요청 1911.11. 14개성 독립 선언 상태 1911.12. 혁명군과 북양군벌 위안스카이 협상, 동맹 1911.12.29. 쑨 원 초대 임시대총통 취임 1912. 중화민국 원년 1912.2.12. 청 멸망 , 위안스카이 2대 임시대총통 취임
위안스카이 독재 (1912-1916)	1913. 위안스카이 정식 대총통 취임 1915. 일본, 21개조 요구 제기 1916.1. 위안스카이 황제 즉위(중화제국) 1916.2. 위안스카이 반대 봉기(호국전쟁) 1916.3. 황제 즉위 취소 1916.6. 위안스카이 사망 → 북양군벌 해체, 군벌 난립(~1927)
5.4 운동 (1919)	· 원인 :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 수용, 산둥(칭다오) 독일에서 일본으로 양도 결정 · 전개 : 이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 발생: 베이징 대학생 시위 → 전국 확산 · 결과 : 중국 정부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 1922년 칭다오 반환

2) 1920's ~ 1940's

쑨 원 : 중국 혁명당(1914) → 중국 국민당(1919) 천두슈 : 중국 공산당(1921)	
제 1차 국공합작 (1924)	· 소련의 원조 → 공산당과 연합, 북벌 추진 · 반제·반군벌 + 황포군관학교 설립 + 3대 정책(연소, 용공, 부조공농) · 쑨 원 사망(1925) → 장제스가 국민당 실권 장악 ·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군벌 타도, 북벌 완수(국민혁명, 1926-1928)
중화민국 국민정부 (1928-1948)	· 1927.4.12. 상하이 쿠데타 : 장제스의 국민당 우파가 좌파와 공산당 공격 → 난징 국민정부 수립(1927) + 제 1차 국공 내전(1927-1936) · 1928. 북벌 완수 후 우한 국민 정부와 통합 → 중화민국 국민정부(1928-1948) · 국공 내전 우세 → 정치적 평화, 경제적 번영
중국 공산당	· 1931.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수도 루이진) -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주도 + 홍군 창설 + 토지개혁 : 농촌 근거지 건설(농민 혁명 노선) · 국공 내전 수세 → 대장정(1934-1936) : 장시성 루이진 → 산시성 옌안
제 2차 국공합작 (1937)	· 만주사변(1931) 등 일본의 침략 · 공산당 8.1 선언(1935) + 시안사건(1936) + 중일전쟁(1937) → 1937. 제 2차 국공 합작 : 항일 통일 전선
제 2차 국공내전 (1946-1949)	· 공산당 승리 → 중화 인민 공화국(1949-현재) · 국민당(중화민국)은 타이완(대만)을 통치(1949-현재)

2) 청(1618-1912)

① 1대 태조 천명제(추존) 누르하치(1616-1626)

- 여진족 통일 → 여진국(1616-1618), 후금(1618-)
- 팔기제 편성(8가지/8색의 깃발이란 뜻)

② 2대 태종 승덕제 홍타이지(1626-1643)

- 조선 공략 : 정묘호란(후금), 병자호란(청)
- 내몽골 공략 → 복원을 멸망(1635)시키고 칸을 겸함
- 국호를 청으로 개칭(1636)
- 명나라 정벌 시도 → 실패(명나라의 직접적인 멸망 원인은 이자성의 난)

③ 3대 세조 순치제(1643-1661)

- 이자성의 난 진압 → 중국 본토 점령
- 황권 강화, 명 세력 우호 정책
- 나선정벌(with 조선)
- 아담 살과 교류(독일인 예수회 선교사, 시헌력, 대포(홍이포), 천문대, 성당 건축)

④ 4대 성조 강희제(1661-1722)

- 삼번의 난(1673-1681, 오삼계·상지신·경정충) 진압 → 중국 전역 지배 확립
- 타이완 정씨왕국(1661-1683) 정복
- 네르친스크 조약(1689) : 루스 차르국(표트르 대제)과의 국경 획정
- 몽골(준가르) 공격, 칭하이 정복, 티베트 정복(1721)
- 강희자전 편찬, 고금도서집성 착수
- 지정은제 실시(1713)
- 백두산 정계비(1712, 조선 속종)

⑤ 5대 세종 옹정제(1722-1735)

- 강력한 독재(군기처)를 통한 안정적인 내치
- 금교령(1723)
- 고금도서집성 완성
- 카흐타 조약(1727) : 시베리아(북아시아) 지역의 러시아 제국과의 국경 획정(*이 때는 표트르 대제 아님)

⑥ 6대 고종 건륭제(1735-1796)

- 정복 활동(준가르 멸망, 네팔 정복 / 베트남, 미얀마 꾀바웅 왕조 정벌 실패)
→ 중국 사상 최대 영토 확보(현 중국 영토 대부분과 그 이상)
- 5민족 통치(만주족, 한족,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 사고전서 편찬
- 원명원 건축(카스틸리오네 : 이탈리아인 예수회 선교사, 서양 화법 전파, 팔기군 그림)
- 퇴위 직후(태상황 재위) 백련교도의 난 발생

4. 근세 서아시아사

<p>투르크의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 → 9세기부터 이슬람 지방 왕조의 용병(맘루크) 활동 · 카라한 칸국(840-1212)이 934년 이슬람교 개종 · 950년경 셀주크 부족이 이주, 세력 확장
<p>1037 - 1194 셀주크 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와이 왕조 멸망(1055) → 바그다드 점령 ·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 칭호 수여(1055) · 지중해 ~ 파미르 고원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 · 십자군 전쟁의 장기화로 쇠퇴 · 왕실 내분으로 제국 분열
<p>이집트~시리아 지역</p>	<p>1370 - 1507 티무르 제국</p>
<p>아이유브 술탄국(1171-12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라드 앗딘 건국(파티마 왕조 멸망, 1171) · 수도 카이로 · 수니파, 쿠르드족 <p>맘루크 술탄국(1250-15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유브 왕조 멸망 + 수도 카이로 · 수니파, 튀르크인 · 몽골 침입 격퇴 · 오스만 제국 셀림 1세에 멸망(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무르 건국(몽골 제국 부활), 대제국 건설 → 명 원정 도중 사망(1405) · 수도 사마르칸트: 동방의 로마 → 레기스탄 광장(비비하눔 모스크, 구르 아미르) ·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 ·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게 승리(1402) · 이슬람, 이란, 튀르크, 중국의 복합 문화 · 세밀화, 천문학 발달 · 튀르크계 우즈베크인에 멸망(1507)
<p>1299 - 1922 오스만 제국</p>	<p>1501 - 1736 사파비 왕조</p>
<p>① 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르크족 오스만 1세가 아나톨리아 지역에 건국 · 무라트 1세(1362-13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탄 칭호 사용 - 발칸 반도 진출(비잔티움 황제를 봉신화) · 메흐메트 2세(1444-1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잔티움 제국 멸망/콘스탄티노플 천도(1453) · 셀림 1세(1512-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맘루크 왕조 멸망(1517) → 술탄-칼리프 제도 · 술탄이만 1세(전성기, 1520-1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정복, 신성로마제국 위협(1529. 빈 포위전) - 유럽 연합 함대 격파(프레베자 해전, 15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해 해상권 장악, 교역 주도 <p>② 사회,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해, 동서 교역 독점(무역기지 '바자르') · 티마르 제도 : 중세 기사와 비슷한 군사 봉건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를 받고 기병(시파히)로 복무(무라트 1세부터) · 예니체리 : 술탄 친위대이자 정예 보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령지(주로 발칸반도)의 크리스티교 남아 징발 · 수니파 + 다언어 사회(공식적으론 투르크어) · 타종교 관용(인두세만 내면 종교 공동체 '밀레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서 건국 · 이란인, 시아파 국교 → 수니파 탄압 · 페르시아의 전통 군주 칭호 "샤(한샤)" 사용 · 대 오스만 전쟁 지속(종파 대립) · 아바스 1세(전성기, 1588-1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력 강화, 오스만으로부터 바그다드 탈환 - 중상주의, 비단 산업 국영화 - 이스파한 천도(세이크로트폴라 모스크, 이맘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도시(유럽 상인, 선교사 체류와 신앙 자유) 거래 활성화(유럽에 상인 파견) · 올라마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왕실 내분으로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간족 침입으로 사실상 멸망 → 나디르 샤 장군이 아프샤르 왕조를 세우며 멸망 <p>③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 중심에 튀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문화 융합 · 페르시아식 세밀화, 궁정문학 · 아라베스크 무늬 · 이슬람 사원 건축(비잔티움 양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탄이마니에 모스크 - 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 자연과학 발달 (cf. 커피 문화 유럽 전파)

2. 근현대 동남아시아사

베트남	<p>① 근왕운동(1885-1889) : 청불전쟁 중 유교 지식인들의 반프랑스 민족운동 → 조직력 부족, 프랑스의 회유책으로 실패</p> <p>② 판보이쩌우 - 베트남 유신회(1904) : 동유운동(일본에 유학생 파견) 통킹의숙 설립(판 쩌우찐, 1907-1908: 프랑스에 의해 폐쇄) - 베트남광복회(1912) : 중국으로 망명해 광저우에서 조직 → 무장 투쟁, 공화정 수립 목표 * 월남망국사(1905) : 동유운동의 계기가 된 판보이쩌우와 량치차오와의 대화를 기록</p> <p>③ 호찌민 - 1925년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사회주의 단체) 결성 및 민족 운동 주도 -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인도차이나 공산당) 창당 * 제 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 식민지 수탈 가중 - 1941년 베트남 독립 동맹회(비엠티) 결성 - 1945년 일본 패망 후 비엠티의 전국 봉기로 하노이 무혈 점령 →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 호찌민 주석 취임</p> <p>④ 분단과 통일 -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 : 북베트남(비엠티) vs 남베트남(프랑스) → 비엠티 승리 → 제네바 협정(1954) : 베트남민주공화국(북, 사회주의)과 베트남공화국(남, 자본주의)로 남북 분단 - 베트남 전쟁(1964-1975) → 북부 승리로 무력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1975-현재)</p>
태국	<p>① 라마 4세(몽꿏, 1851-1868), 라마 5세(쥘랄롱콘, 1868-1910) - 완충국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외교, 불평등 조약과 영토 포기를 통해 독립 유지 - 영국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바이링 조약(1855) 외 다른 서구 열강과도 조약 체결 → 다수의 서양인 고문관을 통해 각종 분야의 서양 문물 도입, 근대적 개혁 추진 - 라마 4세, 말레이반도(영국), 캄보디아(프랑스) 영토 포기 - 라마 5세, 라오스(프랑스) 영토 포기</p> <p>② 1차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p> <p>③ 1932년 시암 혁명 : 국호 타이, 입헌 군주제</p>
미얀마	<p>① 아웅산(1915-1947) - 반영 운동 → 반일본 운동 주도 - 1947년 '애틀리-아웅산 협정' : 1년 내에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확인 받음</p> <p>② 1948년 독립 → 버마 연방(1948-1962)</p>
필리핀	<p>① 호세 리살(1861-1896) - 필리핀 민족 동맹(1892) : 에스파냐인과 동등한 권리 요구, 독립·계몽 운동 → 체포, 처형 - 「나에게 손대지 마라」 저술</p> <p>② 아기날도(1869-1964) - 카티푸난(1892-) 소속으로 에스파냐에 무장 투쟁, 1897년 카티푸난 주도권 장악 → 미서 전쟁(1898) 중 독립을 약속받고 미국 지원 - 필리핀 제 1 공화국 수립, 초대 대통령 취임(1899) → 미국의 불인정, 미국 식민지화</p> <p>③ 필리핀 독립 - 1934년 10년 뒤 완전 독립 승인, 자치권 획득 → 필리핀 자치령(1934-1946) - 1941년부터 일본 지배 → 괴뢰국 필리핀 제 2 공화국(1943-1945) - 1945년 일본 패망 후 자치령 재수립 → 1946년 완전 독립, 필리핀 제 3 공화국(1946-1965)</p>
인도네시아	<p>· 부디 오토모(1908), 이슬람 동맹(1912), 카르티니(여성 교육), 인도네시아 국민당(1927, 수카르노)</p> <p>· 1942년 일본 지배 → 1945년 일본 패망 후 독립 선언 → 네덜란드 인정 × →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1945-1949) : 세계 여론과 미국 압력으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포기 → 1949년 독립, 인도네시아 합중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p>

3) 근현대 아프리카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식민지화 · 알 무크타르의 저항 운동으로 효과적으로 지배 X → 1951년 독립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30년 프랑스 침략 → 30년간 알제리인들의 저항 · 프랑스가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고 식민지화 → 프랑스인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 알제리인들의 지속적인 저항 → 1962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 독립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흐디 운동(1844-1885) - 오스만, 이집트, 영국의 지배에 맞서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구원자 '마흐디'를 칭하며 군대를 일으키고 개혁 추진 →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실패
에티오피아	<p>에티오피아 제국(1137-19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도와 전투(1896) : 이탈리아 격퇴 → 아디스아바바 평화 조약(1896) : 독립 인정 · 메넬리크 2세(1899-1913) - 에티오피아 통일 - 근대적 개혁(철도, 학교, 신식 군대)
남아프리카	<p>① 줄루 왕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카 줄루가 1816년 주변 부족을 통합해 줄루 왕국 건국 → 영국 침략 - 줄루 전쟁(1879) : 이산들로나 전투에서는 줄루 왕국이 승리하나 결국 패배하고 식민지화 <p>② 보어인들의 공화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어인(아프리카너) : 16세기 이후 남아프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백인들, 주로 네덜란드계 - 트란스발 공화국(1852-1902), 오라네(오렌지) 공화국(1854-1902) - 1차 보어전쟁(1880-1881) : 영국에게 승리 - 2차 보어전쟁(1899-1902) : 영국에게 패배 → 남아프리카 식민지화 <p>③ 독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0년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수립 - 196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립 - 인종 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저항 운동 →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식민 지배와 수탈 · 헤레로족의 무장 봉기(1904) → 독일군의 무자비한 진압(부족 대다수 사망)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식민 지배와 수탈 · 마지마지 운동(1905) : 킨 세케틸레 주도로 원주민 봉기 → 독일군이 초토화 전술로 진압
아프리카의 해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국 독립

이슬람

사진	명칭	시대/연대/위치	기타
	알 악사 모스크 (바위의 돔)	우마위야 왕조 69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슬람교 3대 성지 (나머지는 메카, 메디나)
	레기스탄 광장	티무르 제국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비비하눔 모스크	티무르 제국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티무르의 왕비(비비하눔) 중앙아시아 최대 모스크
	구르 아미르	티무르 제국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티무르 대왕 영묘
	이맘 광장	사파비 왕조 아바스 1세(1588-1629) 이란 이스파한	-
	셰이크로트폴라 모스크	사파비 왕조 아바스 1세(1588-1629) 이란 이스파한	-
	술레이마니예 모스크	오스만 제국 술레이만 1세(1520-1566) 터키 이스탄불	성 소피아 성당과 유사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블루 모스크)	오스만 제국 1616년 터키 이스탄불	비잔티움 양식 도입